

예술에서의 진실

- 나는 왜 장송곡(葬送曲 Funeral Music)을 즐겨 듣는가? -



박 창 근
<본회 고문 / UNEP Global 500>

어쩌다 필자는 오늘 날 환경인이 되었지만, 어렸을 때의 꿈과 희망은 예술가였다. 열한 살 때부터 시작한 바이올린은 대학시절 아이들에게 레슨을 해주며 학비를 보낼 정도로 열심히 했으나, 군에서 팔 하나를 잃는 바람에 바이올린을 놓아야 했으며...

이후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신문기자(당시의 수순?)가 되었으나, 월간 '다리' 지 필화사건과 제7대 대통령 선거 때, 고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비선조직 홍보책임자 노릇을 한 것이 화근이 되어, 일본에 피해간 것이 오늘의 '환경인 박창근'을 만들었다.

그러나 환경보호의 길을 걸으면서도 예술에 대한 집념은 놓칠 못해,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글을 썼다. 그렇게 70여년을 살다보니, 예술에서 진실은 '죽음'을 주제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다.

즉 소설이나, 그림 특히 음악에서는 '죽음' 주제가 그 어떤 곡보다 진솔함을 생각해, 필자가 좋아하는 음악의 주제는 '죽음' 이고 특히 장송곡을 즐겨 듣는다.

필자가 장송곡을 처음 들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인,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던 해, 봄이다.

등교하려고 집에서 막 나서는데(당시, 필자의 선친은 현 '리라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경찰전문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서 우리 가족은 그곳 관사에서 살았고, 바로 위(현, 송의학원)에 해군군악대가 있었다.), 처음 들어보는 장중한 곡이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호기심에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가니,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해군군악대 대원들이 정장(正裝)을 차려입고, 한발을 떼고, 다른 발을 그 발에 끌어다 당겨 붙이는 걸음(장례행렬에서 군 의장대가 주로 사용하는 보행)으로 아주 천천히 행진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며, 군악대본부에서 길을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날 학교에서 음악선생님을 찾아가 아침에 들은 곡이 너무 인상 깊어서 선생님에게 곡조를 그대로 읊조리며 곡명을 여쭙보니, "쇼팽이 작곡한 장송행진곡(Chopin, Piano Sonata No. 2. 3rd, B flat minor Op. 35 'Funeral Marche')으로 장례식에서 많이 연주한다."고 알려 주셨다.



엄숙하고 침울한 주부(主部)와 조용하고 아름다운 중간 부분의 선율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이 3악장 장송 행진곡은 초등학생이었던 당시 필자의 뇌리에서 사라지 지 않았고... 그해 여름 발발한 6.25 전쟁으로, 전쟁의 비극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들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이들 곡 또한 장송행진곡과 같은 무게감과 비극적인 선율에 매료되기도 하였다.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의 중학생 때, 같은 반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그 친구의 아버지가 아낀다는 유성기(留聲機)에서 들은 바그너(Wagner) 곡은 이후, 필자를 Wagnerian으로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때 들은 곡이 무슨 곡이였는지는 곡명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음에서 고음으로 치달는 드럼소리... 트럼펫의 세찬 울림으로 이어지는 관악기의 폭발적인 에너지에 전율을 느꼈던 기억... 절규하는 듯한 길고도 긴 독창(아리아) 등을 기억하건데, Wagner의 반지(Ring) 중의 마지막 악곡, '신들의 황혼(Gotterdammerung)' 중, 지그프리트(Siegfried)의 장송행진곡과 브뤼헨데의 아리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후,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Wagner 음악을 섭렵(涉獵)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R. Strauss, Bruckner, Mahler, Brahms, Beethoven 등으로 필자의 귀는 터 갈다. 그 중에서 Requiem과 Funeral March에 대한 호감은 Beethoven 심포니 3번과 7번 곡을 취취자와 오케스트라 별로 수십 장이나 애장하고 있고, Requiem과 관련된 곡도 열심히 수집했다.

심지어는 '죽음'이나, '무덤'으로 표현되는 제목의 음악도 열심히 들었는데... Rachmaninoff의 'The Isle of the Dead' 나 Go'recki의 'Symphony 3', Bach의 'Partita D Minor' 나, Shostakovich의 Symphony 7 'Leningrad' 는 지금도 열심히 듣고 있는 곡이기도 하다...

우리 환경기술인들이여...

가끔, 아래 곡들을 찾아서 들어보길 바란다. 인생의 심오함과 삶의 가치를 새삼, 느낄 것이다.

- WAGNER: Gotterdammerung: Siegfried's Funeral March / BEETHOVEN: Symphony No. 3 In E Flat Major, 'Eroica' Op. 55: Second Movement: Marcia Funebre (Adagio Assai) / BEETHOVEN: SYMPHONY NO. 7 IN A, OP. 92: II. ALLEGR / MAHLER: SYMPHONY NO. 5: IV. ADAGIETTO. / MAHLER: Das Lied von der Erde / VERDI: La Traviata Act 3 / VERDI: Nabucco - Funeral March / FAURE: Elegie / FAURE: Pavane Op. 50 / FAURE: Requiem -Libera me / CHOPIN: Piano Sonata No.2 -- Funeral March / TCHAIKOVSKY: - Six Pieces On One Theme Op.21 - IV. Marche Funebre / VAN DEN BUDENMAYER: Funeral Music / GRIEG: Peer Gynt -- Ase's Tod / BRAHMS: A German Requiem / PURCELL: Funeral Music For Queen Mary / MOZART: Maurerische Trauermusik In C Minor, Masonic Funeral Music K477/K479a / BARBER: Agnus Dei, Op.11 / SKINNER: Belas Funeral / JOSEF(1874~1935): Fairy Tale Op.16 - III. Intermezzo: Funeral Music 등... (CD)



장송곡만을 수록한 CD 표지